창간 50 불교신문 1960년 1월1일

2010년 10월 20일 수요일

佛敎新聞

주2회 발행 | 대표전화 (02)730-4488 | ibulgyo.com | 불기 2554년(단기 4343년) 음력 9월13일 | 제2664호

www.GungPlant.co.kr
시원하게! 편안하게! 부드럽게! 진료하는
궁플란트치과의원
TEL. 02-722-2870 조계사 앞 사거리, 1호선 종각역 2번 출구 앞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90420-중-1905호

중앙-교구 종단발전 위해 소통

특강 토론 열기…종무기관장·본사주지 연수 성료

중앙종무기관과 교구본사가 종단 발전을 위한 지혜를 모으는 소통의 장이 마련됐다. 조계종 교육원은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공주 태화산 전통불교문화원에서 '불기 2554(2010)년 종무기관 3원장·부서장 및 교구본사 주지 연수'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에는 총무원장 자승스님, 교육원장 현응스님, 포교원장 혜총스님을 비롯해 중앙종무기관 부서장과 교구본사 주지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개회식에서 "제33대 집행부가 마련한 종단발전 계획 등 종책들이 교육원장·포교원장 스님을 비롯한 부서장 스님들의 노력과 실천, 그리고 교구본사 주지스님들의 흔쾌한 지지로 여법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9월)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해 미국을 방문해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종단의 책임과 역할의 중요성을 느꼈다"고 소감을 밝힌 후 "불조(佛祖)의 혜명(慧命)을 잇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종단이 깊이 생각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서 승가교육 개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승가교육 개편에 대해 종단 안팎의 기대가 많다"면서 "내년부터 본격 진행할 출가종책도 잘 이뤄지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총무원장 스님은 "내년에 추진할 종책에 대해 교구본사주지 스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한다"면서 "우리의 힘과 에너지를 집중하고 가장 시급하게 풀 과제들에 대해서도 의견을 공유하겠다"고 강조했다.

입재식이 끝난 후 윤여준 한국지방발전연구원 이사장의 특강이 진행됐다. '한국사회 변화의 흐름과 불교의 역할'을 주제로 한 특강에서 윤여준 이사장은 사회성 확대, 평화·통일·민주·환경 등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표현, 도덕적 권위를 바탕으로 한 영향력 발휘 등을 한국불교의 과제로 제시했다.

이번 연수는 두 차례의 토론을 비롯해 종단 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지는 등 중앙종무기관과 교구본사가 종단발전을 위해 소통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공주=이성수 기자 soolee@ibulgyo.com

지난 15일 공주 태화산 전통불교문화원에서 열린 교구본사주지회의. 중앙종무기관 3원장과 부·실장, 19명의 교구본사 주지스님이 참석했다. 회의를 마친 스님들은 전통문화원 운동장에 기념식수를 하며 연수 등 모든 일정을 회향했다.

"종교갈등 해소 메시지 필요"

제3차 교구본사주지회의 열려

조계종 총무원은 지난 15일 '종무기관 3원장·부서장 및 교구본사 주지 연수'가 열리고 있는 공주 태화산 전통불교문화원에서 19명의 교구본사 주지스님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교구본사주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 안건은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한 조계종 미국행사 결과보고 △내년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예산요구 현황보고 등.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미국에서 한국불교에 대한 인식과 인지도가 미미한 것이 현실"이라며 "종교간 갈등을 해소하고 종교간 화합과 상생에 대한 메시지를 전 세계에 던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스님은 템플스테이와 사찰음식을 통해 한국불교의 세계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과 함께 외국인 스님을 해외에 파견해 현지인 포교에 나서도록 하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내년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예산요구 현황보고에서 기획실장 원담스님은 "종단의 핵심 주요과제를 본격화해야 할 시기"라며 "승가복지, 종책연구소 설립, 종단 수익사업을 위한 기반마련, 종교평화 실천과 화쟁위원회 활동 등을 중심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논산 훈련소 군법당 건립 동참 △종단과 재향군인회가 진행하는 장례문화 캠페인 동참 △행정안전부의 지자체에 대한 종교단체 예산지원 제한 등에 대한 의견이 개진됐다.

공주=이성수 기자 soolee@ibulgyo.com

社告

대한불교조계종 중앙기록관 불교역사자료 모으기 운동

"단 한 장의 기록도 불교의 역사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중앙기록관과 불교신문은 불교역사자료 모으기 운동을 시작합니다. 소중한 기록을 영구보존 활용할 수 있도록 중앙기록관이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사찰과 큰 스님의 유업에 남아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영구전승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바랍니다.

▶ 대 상 : <문서기록> 고승글씨, 필적, 육필원고, 편지, 일기, 전법게, 안거증, 포상증, 졸업장, 계첩, 전적, 사진엽서, 기타 서류
<사진, 녹음테이프> <큰스님유품 및 박물류>
<봉축관련 사진과 기록> 등

▶ 문 의 : 중앙기록관 (02)2011-1712
E-mail : park5149@buddhism.or.kr

대한불교조계종 중앙기록관 · 불교신문사

사명성사 400주기 추모대제 현장 15면

'내 이익을 앞세우는 이기심을 내려놓으며 절 합니다' 지난 14일 저녁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비움으로 행복찾기' 선포식에 참가한 신도들이 108배를 하고 있다. 김형주 기자 cooljoo@ibulgyo.com

아름다운동행, '비움으로 행복 찾기' 캠페인 선포

108배 통해 마음 비우며 나눈다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 시민들이 모여 108배를 했다. 지난 14일 저녁 7시께 시민 100여명이 시멘트 바닥에 방석을 깔고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발원문을 따라 절을 했다. 시민들은 조계종 기부 모금 법인 '아름다운동행'이 마련한 '비움으로 행복찾기' 행사에 동참하는 중이었다. '비움으로 행복 찾기'는 아름다운 동행이 기획한, 절과 자비를 결합한 기부 프로그램이다. 박찬정 아름다운동행 사무국장은 "'비움으로 행복찾기' 캠페인은 물질만능 시대에 '채움'보다는 '비움'을 실천하고, 가치와 양심, 이웃의 아픔을 함께 고민하며 진정한 행복을 찾자는 취지로 시작됐다"고 밝혔다.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장 혜경스님은 "비움을 실천하기 위해 몸과 마음, 재물의 비움이라는 3가지 실천운동을 함께 전개한다"며 "몸의 비움. 자기를 돌아보며 스스로를 존재하게 해준 모든 것들에 감사하는 108배를 매월 하며, 마음의 비움. 나를 제외한 주변과 이웃의 행복을 기원하는 대상 108개를 정해 매달 한 대상씩 행복을 기원하는 마음을 간직한다. 그리고 재물의 비움. 감사와 기원의 마음이 구체적인 사회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매월 1만800원 (1배-100원)을 이웃을 위한 기부에 동참한다"고 소개했다.

'비움' 캠페인은 발기위원회를 통해 확산 전파된다. 발기인에는 화쟁위원장 도법스님, 혜경스님과 이학범 목사, 홍창진 신부, 김덕수 원불교 교무, 정정숙 천도교 중앙교화관 관장 등 다른 종교 성직자들도 참가했다. 이외 홍준표 조윤선 주호영 (한나라당), 최문순 강창일(민주당)의원 등 정치인, 성태용(건국대), 김용현(동국대) 등 교수, 삼성사회봉사단 장인성 상무, 르노삼성자동차 류재현 전무, 필립모리스 김병철 전무 등 기업인, 산악인 엄홍길씨, 방송인 정재환씨 등 문화계와 법조, 교육, 의료, 체육 등 다양한 분야의 대표자 108명이 모였다. 이들은 분야별로 '비움' 캠페인을 홍보하고 동참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한다.

'1배-100원' 매월 1만800원 절-자비 결합 기부 프로그램 각계 발기인…실천운동 전개

이날 행사는 비움 실천 운동 선포식이었다. 행사는 저녁7시께부터 시작됐다. 혜경스님은 "물질만능 시대에 살면서 '비움'을 실천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내가 변하면 세상이 달라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어느새 비움의 문화가 우리 사회에 자리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금 연주가 전범수씨의 연주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구석고씨가 붓글씨로 '비움'을 쓰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붓글씨 위에 참석자들이 컨 초를 놓고 108배에 들어갔다. '내가 아는 모든 생명을 깊이 공경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절 합니다' '스스로를 낮추어 자신에게 있는 나쁜 성품을 다스리며 절 합니다' '내 이익을 앞세우는 이기심을 내려놓으며 절 합니다'는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발원문을 따라 1배씩 절을 했다.

행사에는 조계사 신도들과 박종학(총무부 사찰교무팀장)씨 등 재가 종무원, 복지재단 직원과 산하 복지시설 종사자들에다 일반 불자도 다수 참석했다. 또 농협 종로지점 직원들도 참석했다. 진영종 부지점장은 "몸과 마음과 재물을 비운다는 행사 취지가 좋아 직원 7명이 함께 참석했다"고 밝혔다. 행사에 참석한 박용문(조계사 불교대학 주간반장)씨는 "몸과 마음을 비운다는 행사 취지가 좋아 불교대학생 15명과 함께 참석했다"며 "도심 한복판에서 108배를 하니 기분도 좋다"고 말했다.

비움 행사는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열린다. 원하는 기업 단체가 있으면 찾아가기도 한다.

박부영 기자 chisan@ibulgyo.com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00309-중-2478호

궁플란트치과의원 최우환 대표원장

자애로운 마음을 가지고
환자 여러분께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궁플란트치과는 환자에게 맞는 의료장비와 시설을 갖추고, 시원하고 편안하게 옛 고궁에서 느낄 수 있는 품격 있는 치과진료를 환자 여러분께 제공합니다.

진료 안내 | 레이저 치료 · 임플란트 · 사랑니발치 · 시린이치료 · 스켈링 · 잇몸치료 · 잇몸성형 · 치아미백 · 보존치료 · 심미치료 · 보철치료 · 턱관절장애치료 · 예방치료

궁플란트치과의원 | 조계사 앞 사거리 위치 · 서울 지하철 종각역 2번 출구
상담 · 문의 02-722-2870 / www.GungPlant.co.kr

진료시간 | 평 일 : 오전 9시 30분 ~ 오후 6시 30분 | 토요일 : 오전 9시 30분 ~ 오후 4시 | 점심시간 : 오후 1시 ~ 오후 2시 | 일요일 및 공휴일 휴무